금주의 말씀

이사야 7:10-14절

변의석 목사
엘림침례교회 담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3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어 주신 이름이다.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의 일이었다. 아람의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였다. 아하스 왕은 이웃 나라인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겠으니 군대를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웃의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지금 쳐들어온 적들은 부지깽이나 다름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그것도 거절하고 말았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유다 왕국과 함께한다는 징조를 보여주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르신과 베가의 군대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징조, 즉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도 좀 쉬셔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을 신뢰하겠다는 뜻이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앗수르는 눈에 보이는 힘이다.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세상의 힘이다.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뿌리쳤다. 렘 29장 12,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다.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함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임마누엘의 예언이 유다에게 주시는 위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다. 첫째, 삶이 곤고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두려울 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 보면 '목자가 양 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하신다. 이 말은 양 떼에 눈을 떼지 않는 목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결혼을 해서 번성해라 고향으로 가는 꿈을 꾸어도 그것을 믿지 말아라. 차분하게 그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복을 줄 테니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라 하신다. 바벨론 그곳에 내가 함께 가서 살 테니 거기서 행복을 누리며 살라 하시는 것이다. 풍랑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곳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곳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풍랑과 파도를 밟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 그 여인은 어두운 삶을 살았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살았다. 죽지 못해 사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심으로 삶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이다. 세리장 삭개오도 삶의 의미를 모른 채 돈돈돈 하며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픈 생각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 삶이 곤고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해 주신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즉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동시에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이 곤고한 세상 가운데 나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겠다 하신다. 셋째,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고 계시기를 원하신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체험하셨다. 우리의 외로움도 아시고, 슬픔도 눈물도 아신다. 가난한 자의 신음도 아신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의 아픔도 아신다. 노한 풍랑과 싸워야 하는 격정적인 인생의 파고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도 십자가에서 체험하셨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고비마다 먼저 지나가신 주님의 흔적이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오늘도 임마누엘이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그 이름 예수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시다. 렘30장19절)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나오는 소리이다.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개입하시며 인도해주신다. 넷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면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20)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다.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맨 앞에 기록했고, 비록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가 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되고 곤고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신다. 예수님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 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90. 초대교회의 활동(행2:43~47)

공동체라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공동 사회, 운명과 생활을 같이하는 몸이라고 풀이를 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가 되고 생명체가 된다는 뜻이다. 흔히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다. 교회는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로 구성된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르침이고 훈련이다. 초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자신을 훈련시켰다. 둘째로, 서로 교제가 있었다. 이러한 교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도 짝사랑을 싫어하셨는데, 이는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믿는 사람들의 사귐은 코이노니아라고 한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한 몸으로 성장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여 자아를 내세우지 않는 모임이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또한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는 밥상 공동체였다.

/그림=김창남 화백 · 글=김승원 목사

교육

홍기범 교수
· 한국창조과학회 광주전남지부

종교전쟁(5)

CH북스에서 출판한(2007년),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 207쪽에 실린 글을 인용하여 보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를 신앙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증거에 기초한 신앙이며, 그 증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성경 안에서 발견되며, 이차적으로는 자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발견된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자연 안에 나타난 계시"를 언급하고 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안에 나타난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탐구하여 찾을 수 있다.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주장한 지동설로부터, 튀코 브라헤의 천체 관측 데이터, 요하네스 케플러의 세 가지 행성 운동 법칙,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한 지상 물체의 운동 법칙을 거쳐 아이작 뉴턴이 마무리한 과학혁명을 통하여, 만유인력과 세 가지 운동법칙을 발견하였으며, 1687년에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1873년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 작용하면서 빛의 속도로 진행하는 전자기파를 예측하였으며, 빛도 전자기파임을 주장하였다. 1887년에는 하인리히 헤르츠가 전자기파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1905년에는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하여 발표한 이론 중 하나가 물질과 에너지가 등가라는 것이다. 물질-에너지 등가 이론은 핵폭탄에 의해 증명되었다. 오늘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인터넷, 와이파이를 비롯하여, 원자력 발전소,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인공위성, 대륙간 탄도탄 등의 수많은 현대 문명의 결과물들은 뉴턴, 맥스웰, 아인슈타인 등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연에서 발견한 자연법칙들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쉬지 않고 방출하고 있는) 태양의 에너지원은 수소의 핵융합 에너지라는 것도 과학에 의해 밝혀졌다.

천체 운행의 비밀, 태양 에너지의 비밀, 전자기파의 존재 등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관찰과 경험을 통하여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이것이 과학의 성과이다. 유신론자이건 무신론자이건 그리스도인이건 무슬림이건 지적 장애자가 아닌 한에는 현대문명의 기반인 과학을 거부하지 않는다. 과학적 사실은 종교나 사상에 의존하지 않는다. 유신론자인가 무신론자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과학이 아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과학이 아니다.

세상에는 무신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무신론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큰 무신론 철학자였던 앤터니 플루(Antony Flew: 1923-2010)는 말년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을 버리고 (신 또는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유신론으로 전향하였다. 앤터니 플루는 자신이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전향한 여정을 《신은 존재한다》는 책을 통하여 밝혔다. 감리교 목사의 아들이었던 플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었으나, 악(evil)의 문제로 인하여 플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플루는 15세가 되었을 때, 스스로 무신론자로 행세했다.

플루는 1950년에 〈신학과 위조〉(Theology and Falsification)를 출판하여 수준이 너무 낮은 신학적 명제들이 많다고 주장하였으며, 1961년에 〈신과 철학〉(God and Philosophy)을 출판하여 신의 존재에 대한 설계론적, 우주론적, 도덕적 주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971년에는 〈무신론의 전제〉(The Presumption of Atheism)를 출판하여 "합리적 관점으로써, 신의 존재에 관한 어떤 논쟁에서도 우선적으로 무신론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증명은 유신론자가 감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마지막 책이 되었다.

무신론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無)로부터 우주가 생성되었다", "언젠가 모를 오래 전에, 무기물들이 우연히 화학반응을 일으켜 살아 있는 세포가 되었다", "막대한 량의 유전정보의 우연한 출현", "도덕성이 자연선택에 의해 형성되었다" 등의 수많은 증명 할 수 없는 명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돌을 거쳐 살아있는 세포가 되었다든가, 복잡하고 막대한 량의 유전정보가 지성(intelligence)의 개입 없이 우연히 저절로 출현했다든가, 도덕성이 자연선택에 의해서 출현했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건물 매매 · 임대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란입니다.

교회 매매
• 위치 : 송정동 아파트상가 (반지하 통풍, 환기 잘됨)
• 면적 : 30평 예배당(주방겸 목양실)
• 금액 : 8천5백만원
※성물, 집기포함, 가격조정가능 올리모델링, 교통주차편리
010-5600-8890

교회 임대
• 위치 : 남구 백운로 66번길 파리바게트 3층
• 면적 : 55평
• 금액 : 보증금 1,500만 / 월 60만
※비권있음
010-7488-3375

교회 매매
• 위치 :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사랑하는교회) (도청까지 차로 5분거리)
• 면적 : 대지114평, 교회40평, 사택20평
• 금액 : 1억 4천만원
※식당,창고,화장실
※성물외 자동차스타렉스11인승,집기포함
010-8355-9200

토지 매매
• 위치 : 전원교회 용도 토지매매 담양군 대전면(북광주 IC부근)
• 면적 : 약 2,480제곱미터
• 금액 : 1제곱미터당 54만원
010-6425-1491

교회 매매
• 위치 : 전남 무안군 일로읍 (도청까지 차로 5분거리)
• 면적 : 대지 114평 교회 40평 사택 20평 식당, 창고, 화장실,
• 금액 : 1억 5천만원
※성물 외 집기포함
010-4630-0091

교회 매매
• 위치 : 북구 본촌초등학교 바로 옆 (지산중학교 100M)
• 면적 : 대지 82평 1층-예배당 46평 2층-사택 24평
• 금액 : 4억 8천만원 ※교회이전으로 인한 급매
010-8616-0191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 광산구 신창로(신창지구)
• 면적 : 대지 67평 건평 80평 1층-예배당 40평 2층-사택 및 식당 40평 부속건물- 중 이층 유아실, 방송실
• 금액 : 7억 5천만원(대출 2억5천5백만포함)
※리모델링(친환경 황토 및 편백)
010-9661-9099

교회 매매
• 위치 : 서구 화정동
• 면적 : 51평
• 금액 : 3억9천5백만원
※차량(봉고차) · 고급 비품 포함
010-4875-3474

교회 매매
• 위치 : 북구 두암동(반지하)
• 면적 : 100평
• 금액 : 2억 7천만원(조정가능)
※기도원 적합
※모든업종가능
010-2620-2654

예배당 매매
• 위치 :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 면적 : 대지 90평, 건물 22평
• 금액 : 1억6천만원
※담양 메타세콰이어거리에서 5분
※바로 앞에 깨끗한 우물있음
※텃밭있고 동네155가구 ※1년전 리모델링
010-5630-4531

건물 임대
• 위치 : 서구 내방로 209번길4(상일여고 옆)
• 면적 : 43평 (방3개, 화장실 2개, 대형거실, 모던한 주방, 거실 천정형 에어컨, 안방 별도 에어컨)
• 금액 : 보증금 3천만 / 월 100만원
※별도의 권리금 없음
010-8430-5515

교회 임대(반지하)
• 위치 : 서구 내방로 209번길4(상일여고 옆)
• 면적 : 76평
• 금액 : 보증금 1천만 / 월 70만원
※시설 권리금 없음
※비품은 없는 상태임
010-8430-5515

교회 임대
• 위치 : 북구 임동(임동사거리 부근)
• 면적 : 80평(2층)
• 금액 : 보증금 2천5백만 / 월 80만원
※시비 있음
※3층 80평 (추가 사용도 가능) 보증금 2천만 / 45만원
010-6361-2004